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① 미래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어긋난 예언

“올해 제가 삼재(三災)입니다. 하하하...”
A씨가 밝게 웃으며 말한다. “예전에 세해 운수에 매달려 찢찢매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요. 지금은 그런 것 상관없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씨는 사주를 묻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연말에는 신년운수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좌우되곤 했었다. 삼재라고 하면 소위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 부적도 사 놓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올해 운수가 나쁘다더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곤 했다. ‘몇 월만 되면 좋아진다니까 기다려라지’ 하는 등 때를 사주풀이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했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맞는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가서 물어보아야 안심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체인점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것인데 만일 잘못되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유명하다는 사주보는 곳 몇 군데나 가서 물어보았다. 모두 괜찮다고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A씨가 체인점을 시작하기에는 그 해가 일생에 가장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까지 했다. 안심하고 돈을 열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첫 달 만에 불이 나서 전부 타버린 것이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수

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도 지긋지긋했다. “아니, 당신 운이 좋으면서요! 그래 불나는 것도 못 맞추면서...!” A씨는 사주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그 때부터 절에 다니며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운명이 있거나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 의지하고 맞추어 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신년운세 · 삼재풀이 · 부적에 의지할까?

안되고 되는 것을 쥐고 있는 건 자기 자신

“진짜 삼재는 팔자따라 살려는 그 마음”

다. 올 해 이 일이 잘 될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 회사는 돈을 달올까 계속할까? 취업이 될까? 입학시험에 합격할까? 승진할 수 있나? 결혼은 언제 해야 하나?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가 좋아지나, 누가 지도자가 될까...? 답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다해 노력해 본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나의 선택’이며 ‘나의 노력’이라는 점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배우게 된다. 다음에는 그만큼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다시 작은 회사에 취입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예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해졌다고 한다. A씨는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육신과 분노, 지나친 집착을 가라앉히려한다. 그런 상태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노력한다.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수정하고 또다시 노력한다. 침착해지고 화를 덜 내니 아내와 가족들이 좋아한다. 주위에서는 편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한다.

누가 “올해 삼재니까 조심하라”고 했다. A씨는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항상 마음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고 불안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어느 스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긴다고 한다.

‘안 되고 되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답이 알고 싶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사람마다 걱정도 많습니

다. 올 해 이 일이 잘 될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 회사는 돈을 달올까 계속할까? 취업이 될까? 입학시험에 합격할까? 승진할 수 있나? 결혼은 언제 해야 하나?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가 좋아지나, 누가 지도자가 될까...? 답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흔살에 부르는 사모곡 (상)

박을선 부산시 사하구 정림2동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말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에 이제 70이개를 갖 넘은 제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집은 불심 깊은 어머니로 인해 불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지켜 본 모습은 어머니가 행해온 무수한 보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쳐 도와주고, 아픈 사람 그냥 스치기 못해 치료해주고, 웃 주고, 밥 주고 마치 ‘관세음보살’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남독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결혼 후에 딸 둘만 두었던 분이었는데 남의 자식조차 내 자식 삼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뻔 손길로 인해 생명을 건졌던 제 남편은 저와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죠. 아들 삼아 사랑했던 이를 사위로 맞게 된 어머니에게 저는 딸이면서 며느리도 되었지요.

어머니는 불심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집에는 스님들이 언제나 드나드셨습니다. 탁발에 나섰던 스님들이 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허기를 채우시라고 더운 여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수를 삶아 편히 드시게 했습니다.

공양하시는 동안 땀에 젖은 스님의 웃음 깨끗이 빨아 다림질해서 입도록 했습니다. 탁발 받은 쌀로 무거웠을 짐을 편히 메고 그 높은 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스님들 공양에 은원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집은 몇 년 전 ‘달마야 놀자’ 영화를 촬영했던 김혜 신아산 은하사 인근에 있었습니다. 자주 은하사를 오르내리던 어머니는 바쁜 절 살림을 위해 몸소 공양주 보살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을 공양하던 틈틈이 법당 대웅전에서 천 배, 만 배 무릎 꿇고서 저희들을 위한 공을 드렸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니의 정성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스님들을 섬겼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은하사 뒤쪽 산 위 앞자에는 연세 높으신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흙여 몸이나 아프신지 전기도 없는 곳에 무사히 계신지 어머니는 한밤중에 쌀을 이고 그 오솔길을 거뒀어 올라가시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스님께서 엄동설한에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보고 밤샘하듯이 털어 털어 솜을 놓고 누빈 버선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이해가 부족한 첩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를 아셨고, 임종 마지막 모습은 마치 곁에 화장을 한 듯 신선 그 자체로 잠드신 모습이었습니다. 유언대로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비를 뿌리더니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찬란하게 장식을 이루었습니다. 하늘을 본 분들은 “정말 연화신보살님이 극락왕생 부처님 곁으로 가셨다”는 말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방에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천주염주와 백팔염주가 고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문득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없다는 한을 안고도 제게 들도 없는 자식 사랑을 듬뿍 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부부교사로 4남매와 살림살이를 풍평 어머니에 맡긴 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달팠던 육체와 정신적인 부담을 달래지 못한 불효자식이었던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잠기는 고회를 넘은 딸은 반성으로 저절로 마음을 채찍질할 따름입니다.

9월 그날날 국화꽃 향기가 가득 할 때면 어머니의 기일이 되는 날입니다. 좋은 계절에 작고하셨지만 나이 예순 한 살 회갑이 되던 그 해에 자식 곁을 떠나가셨죠. 어머니를 여고 밟고 의지했던 어머니 없이 저 혼자 1인 3역을 다 해나가기 벅차 교단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후 제 삶에도 고(苦)가 찾아왔습니다. 사표를 내기 직전 서울 연수구 상경한 남편이 뜻밖에 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급변으로 입원한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빨리 상경하라는 통보를 받고 공금함에 가슴 쏘이면서도 문득 어머니가 떠올라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도착한 연수원에서 들은 소식은 자정에 남편이 쓰러져 급히 엠블런스에서 실려 갔다는 비보였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풍경,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두들 사경을 헤매고 아픈 고통의 외침 그 자체였고.

이리 저리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찾은 그녀는 말을 전혀 못하고 그만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니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그림: 문병성

불심 지극했던 어머니 돌아가신 뒤

서울로 연수 간 남편이 응급실에...

남입니다. 좋은 계절에 작고하셨지만 나이 예순 한 살 회갑이 되던 그 해에 자식 곁을 떠나가셨죠. 어머니를 여고 밟고 의지했던 어머니 없이 저 혼자 1인 3역을 다 해나가기 벅차 교단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후 제 삶에도 고(苦)가 찾아왔습니다. 사표를 내기 직전 서울 연수구 상경한 남편이 뜻밖에 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급변으로 입원한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빨리 상경하라는 통보를 받고 공금함에 가슴 쏘이면서도 문득 어머니가 떠올라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도착한 연수원에서 들은 소식은 자정에 남편이 쓰러져 급히 엠블런스에서 실려 갔다는 비보였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풍경,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두들 사경을 헤매고 아픈 고통의 외침 그 자체였고. 이리 저리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찾은 그녀는 말을 전혀 못하고 그만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니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신 행 계 니 판

맑고향기롭게 독서모임

맑고향기롭게는 2월 12일 오후 2시 중앙 사무실에서 조안 열두가 저술한 <나무를 안아 보았나>에 대한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02)741-4696

통도사 철야참선법회

양산 통도사는 2월 10일 오후 9시부터 11일 새벽 예불까지 설법전에서 철야참선법회를 개최한다. 참선에 대한 법문 및 실참으로 진행된다. (055)84-8380

불교인재개발원 정책포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원

원이 2월 22일 오후 6시 불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농어촌경제연구소 권영근 소장을 초청해 ‘농업위기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마련했다. (02)735-2428

불교인재개발원 중국 선종사찰순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은 2007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마련했다. 이번 순례는 3월 5~11일 ‘고우 스님과 함께-선(禪)의 원류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다. (02)735-2428

원효종 이웃돕기 불서화전

대한불교 원효종은 2월 9~15일 부산 금

전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불우이웃돕기 불서화전을 개최한다. (02)735-0501

연화원 호스피스 교육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3월 14일~8월 24일까지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무료 케어복지사 및 호스피스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02)2202-5831

대한불교교사대학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교사대학이 9기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2월 28일까지 불교어린이지도사 과정과 전문지도자과정으로 나눠 정규반과 통상반을 모집한다. (051)852-0852

삼성문화재단에서 되돌아온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친견법회

‘부처님진신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는 기회!’

지난 국민적 관심과 불교계를 해 돋궈주신 MBC 9시 뉴스대, 시사대, YTN, KBS 추적 60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각종 언론에 방영되었던 삼성문화재단에서 되돌아온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가 특별친견법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정해년 황금대지에 정초성지순례에 맞춰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생일대 단 한 번만이라도 육안으로 부처님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불자 수행공덕으로만 가능하다 하였으니 친견인연으로 많은 공덕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 특별친견법회

- 일시: 2007년(불기2551년) 2월 4일(일)~5일(석탄일)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5교구본사 본사, 가평군청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 삼성문화재단
- 후원: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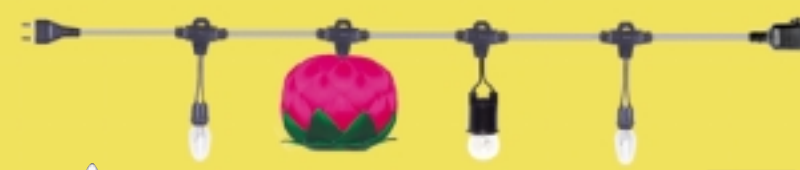
친견하실 사찰 및 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현등사 총무실 031-585-0707
총무실 031-585-7967

한국제일지장국악도당
은악산 현등사
경기도 가평군 현등 163477-833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간전지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청사초등 및 초롱 곁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